

PUBLICATION

큰 지각 변동 없는 조용한 신장세

권태현 | 출판평론가

우리 출판계는 수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왔다. 그리고 이제 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침체되고 위축된 우리 출판계의 현실을 끌어올리기에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요한 책들의 출간을 미루는 출판사들이 없지 않았는데, 출판 경기가 기지개를 펴는 이 시점에 바로 그 중요한 책으로 승부를 걸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조금씩 늘어나는 서점 매출액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출판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늦게 회복하는 분야가 바로 출판이다.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여가생활이고, 여가생활 중에서도 서열이 무척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출판계는 최악의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왔다. 일부 메이저급 출판사 몇몇 곳을 빼고는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면서 버티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다수의 출판사들은 개점휴업 상태로 보내거나 근근히 명맥만 유지했고, 대형 서적도매상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는가 하면, 사라진 동네 서점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출판계가 고사해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넘어 탄식에 가까운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던 불황에 종지부를 찍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점의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매스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고 보도하면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 소비제품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출판 쪽과는 무관했다. 설사 실제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생각보다는 빨리 경기 회복의 여파가 출판계에 미친 셈이다.

교보문고의 경우를 보면, 전국 여섯 개의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인 인터넷 교보문고의 전체 매출액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58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액 480억 원보다 22.3%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서점 YES24 역시 매출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

지다. 2005년 1/4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놀라운 신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서점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신학기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팔린 EBS 교육방송 교재의 인기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 수치를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반 단행본의 판매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게 서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서점의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베스트셀러가 새로 등장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출간된 책들을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판매가 잘 되는 책은 없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판매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인 매출액 신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아심작’ 없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여전히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위즈덤하우스, 2004. 1)가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컨셉트 책들이 뒤를 이어 출간되고 있다. 「50현장 : 50대 독립선언문」(샘터, 2005. 1)과 「마흔으로 산다는 것」(다산북스, 2005. 3) 등이 인생 처세에 관한 전형적인 ‘몇 가지 방법’ 유형의 책들인데, 예전에 나온 비슷한 성격의 책들에 비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편에 속한다.

신간 중에서 가장 큰 약진을 보이고 있는 책은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한문화, 2005. 2)와 「미실」(문이당, 2005. 2)이다.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는 두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두뇌 개발법으로 집중력 트레이닝인 HSP 뇌호흡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이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자녀 교육에 유난히 관심이 많

은 우리 부모들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분야의 책 중에 「기탄 19단 떼기」(기탄출판, 2005. 1)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최근 유행하는 19단 외우기를 겨냥한 발빠른 기획물이다.

이런 책들 외에도 계속 발간되는 「마법천

자문」(아울북, 2003~) 시리즈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책들이 기존의 붐을 이어가고 있어서 전체 판매율에 일조를 하고 있다.

한편 김별아 장편소설 「미실」은 ‘화랑세기’에 기록된 신비의 여인 미실을, 15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현대에 되살린 소설이다.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요녀로 전락하지 않은 자유로운 혼의 여인을 그린 이 작품은, 1억 원의 상금을 받은 제1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으로 출간과 동시에 화제가 되었는데, 판매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교보문고에서만 하루 500권 정

1억 원 고료 제1회 세계문학상 수상자인 김별아 씨와 수상작품 「미실」



출판사 아울북의 「마법천자문」 시리즈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몽고반점>의 한강 씨

도 팔리면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이 작품 외에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인 「몽고반점」(문학사상사, 2005. 1)이 그 뒤를 이어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랜덤하우스중앙, 2005. 2)는 영화의 원작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출간과 동시에 좋은 판매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간 중에서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있는 책들은 경제·경영서 분야의 「2010 대한민국 트렌드」(한국경제신문사, 2005. 1), 「너의 무대를 세계로 옮겨라」(위즈덤하우스, 2005. 3), 「자기설득파워 : 백지연의 성공을 부르는 힘」(랜덤하우스중앙, 2005. 2) 등이다. 이들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려는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리영희와 임현영의 대담을 묶은 「대화」(한길사, 2005. 3), 변호사 박지영이 쓴 「피아노치는 변호사, Next」(땅에쓰신글씨, 2005. 3), 정신과 의사 정혜신의 인물심리평전 「사람 VS 사람」(개마고원, 2005. 2), 「어리석음에 대한 백과사전」(휴먼앤박스, 2005. 2), 「호모 노마드 : 유목하는 인간」(웅진닷컴, 2005. 3) 등이 많진 않지만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책으로 조사되었다.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알차게 준비

된 '야심작'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불황이 계속될수록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만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 나온 출판물 중에서는 그런 '작품'이 없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3월이 교재와 참고서가 주로 팔리고 일반 단행본의 판매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신학기 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액이 적지 않은 신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말하자면 단행본 출판사들이 신간 발간을 꺼리는 신학기를 지나고 나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출판계는 수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런 변화를 놓고 볼 때 그 동안 침체되고 위축된 우리 출판계의 현실을 끌어올리기에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책이 많이 출간되어 고유의 생명력을 이어가야 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요한 책들의 출간을 미루는 출판사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판 경기가 기지개를 펴는 시점에 바로 그 중요한 책으로 승부를 걸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것은 곧 그 책 한 권이 많이 읽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으로 인해서 출판 경기 자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신학기가 지나고 나면 출판사에서 오래 공들여 만든 책들이 앞다투어 출간될 것이다. 그 책들로 인해서 모처럼 해빙의 기미가 보이는 우리 출판계가 큰 활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